

러-독의 PNG커넥션을 美가 끊을 수 있을까?

- ▶ 러시아-독일의 노드스트림2 착공에 대해 강력한 제재까지 천명한 미국. 하지만 경제적 당위성과 현재 미국 외 러-동북아 / 러-서유럽 / 중-카타르(시아파) 등 러시아-중국의 에너지 동맹의 힘은 꽤나 강력한 상황임

러시아와 독일의 PNG 노드스트림2 건설은 이미 화제거리

美 위협·유럽 분열에도...獨·러 '노드스트림2' 건설 본격 착수

(전략) 3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러시아 국경 가스기업 '가즈프롬'의 알렉세이 밀러 회장은 (중략) "독일 루브민 해역에서 노드 스트림-2 가스관을 배치하기 위한 예비 작업이 이미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중략) 노드 스트림-2는 (중략) 2019~2020년 가동을 목표로 진행 중인 사업으로 완공되면 러시아가 유럽에 수출하는 천연가스량은 1100억㎥에 달하게 된다. 현재 운영 중인 노드 스트림을 통한 수출량의 2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에너지 부문 러시아 의존도 확대 및 우크라이나를 통한 가스 수송량 감소 등으로 유럽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후략)

자료 : 뉴시스(2018년 8월 31일), SK증권

미국은 이에 대해 적극적인 제재를 천명했지만...

U.S. Warns Russia It May Sanction New Gas Pipeline to Germany

The U.S. warned Russia that it may follow through on sanction threats over the construction of a major natural gas pipeline to Germany. Asked if the U.S. might impose punitive measures against Nord Stream 2 and other projects, Energy Secretary Rick Perry answered "yes," during a joint news conference (중략) Trump last year signed a law giving him the right to sanction companies involved in Nord Stream 2. Royal Dutch Shell Plc, BASF SE's Wintershall unit, Uniper SE, OMV AG and Engie SA have agreed to provide Russia's Gazprom PJSC with financing for the 9.5 billion-euro (\$11 billion) pipeline and could be at risk of penalties. (하략)

자료 : Bloomberg(2018년 9월 14일), SK증권

- 일단 노드스트림2가 무엇인지부터 간략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 시작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사태로 봐야 합니다. 이로 인해 가스수급에 큰 차질이 우려된 러시아(수출)와 독일(수입)은 고심 끝에 노드스트림1(Nord Stream) 건설을 결정합니다

- 우크라이나를 '경유하지 않고' 발트해를 관통하는 가스관이라는 것이 포인트였고, 이는 2014년 55bcm 규모로 완공되었습니다

- 이를 통해 러시아와 독일은 안정성과 경제성 모든 측면에서 이득을 보고 노드스트림2 건설을 결정하죠. 똑같은 55bcm 규모에 똑같은 루트를 통하는 것이기에 건설이 매우 용이한 상황입니다

- 하지만 기존 러시아-서유럽 PNG 루트에 경유해 금전적/정치적 이득을 취했던 다수의 동/중유럽 국가들이 격렬히 반대 중입니다. 일종의 PIMFY(Please In My Front Yard)라 볼 수도 있겠조

- 하지만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이 판에 트럼프가 이미 적극 개입해 있었고, 현재 그 움직임이 더 격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 美 에너지 안보보좌관 릭 페리(Rick Perry)는 14일 노드스트림2 건설이 강행된다면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 표면적으로는 "국제 정치체제 혼란"을 경계한다는 이유인데요, 이 달은 그저 "상업적"일 뿐이라는 러시아-독일의 주장과 상반되죠

- 아마 이런 해석도 가능할 것입니다. 가스 수출을 추진해야 하는 미국으로선, 크림반도 사태 이후 서유럽에 대한 LNG 수출을 재빨리 진행했는데, 노드스트림은 이미 눈에 가시 같은 존재라는 것이지요

- 다만 이미 러시아와 동북아시아, 러시아와 서유럽, 중국과 카타르(범 시아파 권역)의 새로운 에너지 계약들이 터져 나오는 현 상황을 미국이 의도하는 대로 컨트롤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에너지 애널리스트인 저로선 자꾸 러-중 동맹이 영리해 보이네요

• 작성자는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견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종목별 투자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투자판단 3단계 (6개월 기준) 15% 이상 → 매수 / -15% ~ 15% → 중립 / -15% 미만 → 매도

